

수영대회 경기장 수질 '빛여울수' 수준 관리

오늘부터 독극물 살포 등 테러위험 예방 하루 한차례 수질 검사

“이번 대회 수영장 수질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빛여울수’만큼 깨끗합니다.”

4일 오전 취재진이 공개된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경영 폴 앞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빛여울수는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수돗물 브랜드다.

경영과 다이빙이 펼쳐지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남부대 축구장에 설치된 수구 경기장(임시풀), 아티스틱 수영이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 국내 최초로 설치된 하이 다이빙 경기장 수조는 수질관리를 위해 매일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은 지하 등에 설치된 저장탱크 집모장치에서 이물질질을 거르고 물순환장치를 거친 뒤 수영장에 유입된다. 5일부터는 국가정보원이 독극물 살포 등 테러 위험 등의 예방차원에서 하루 한 차례 경기장의 수질 검사를 진행한다.

정근식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원회 시설팀장은 “주 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의 경우 최첨단 시설을 통해 최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음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광주에 있는 5개의 경기장의 최종실사를 마친 뒤 경기풀을 공식 인증했다. FINA의 공식 인증으로 이번 대회에서 나오는 기록과 신기록은 앞으로 공식기록으로 남게 됐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며 광주세계수영권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4일부터는 관계자와 경기장의 출입이 제한됐다. 이날 오후 5시 안전 검증을 시작으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사전에 등록된 AD카드(Accreditation Card) 소지자에 한해 검문·검색을 통

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출입은 경기관람을 위한 입장 외엔 전면 통제된다.

메인스타디움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 소방인력도 4일 배치됐다. 소방은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대원이 초동 대응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인근 안전센터를 통한 신속대응과 통제단을 가동해 단계별 대응을 할 계획이다. 소방인력은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8일까지 배치된다. 54명과 차량 6대가 24시간 경기장에 상주하고 소방훈련은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서울~인천공항 KTX 운행 임시 재개

광주수영대회 지원 하루 7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해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KTX 운행이 임시로 재개된다.

4일 공항철도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KTX가 하루 7편 운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KTX 임시편은 오전 9시 28분부터 오후 8시 17분까지 4차례 운행한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가는 KTX 임시편은 낮 12시 29분부터 오후 8시 23분까지 3차례 운행할 계획이다.

KTX 임시편 운행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단 수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외국 선수단은 임시편을 타고 서울을 거쳐 광주송정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임시편 운행 기간은 대회 기간을 포함한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다.

인천공항과 지방을 연결하는 KTX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관련 내용이 담긴 ‘철도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승인하면서 폐지됐다.

코레일은 2014년 6월 인천공항 KTX를 개통했으나 승객 수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 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소방인력 379명·차량 38대 배치 '안전 최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테러대응 구조대 20명 포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일 개막하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소방안전 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안전사고 등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인력 379명과 소방차량 38대가 경기장·관람석·선수촌·본부호텔 등에 전진 배치된다.

소방인력 가운데에는 화생방 테러 등의 전문 구조인력으로 구성된 테러대응 구조대 20여명도 포함돼 있다.

대회 기간에는 대회 안전 총괄 지원본부인 대테러안전대책본부로 상황 관리 등을 파견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소방안전기획단 24명을 편성해 대회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유관기관 합동 테러 훈련과 경기장·선수촌 현장점검도 완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오늘부터 무료 와이파이 이용

광주시는 5일부터 모든 시내버스에서 승객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 101개 노선, 1044대 시내버스 전체에서 제공되며 광주 시내를 오가는 전남 시·군 버스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덧붙였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탑승 후 휴대기기 와이파이 설정에서 통신사와 기종에 관계없이 'PublicWifi@Bus_Free_0000'이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해 접속하면 된다. 여기서 '0000'은 탑승한 버스의 노선번호다.

시내버스에 부착된 보안접속 안내문을 참고하면 보안이 강화되고, 속도가 빠르고 품질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다만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강화된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하는 게 좋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6600만원으로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케이티를 사업자로 선정, 국비와 시비 1대 1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됐다. 당초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맞춰 운영 시기를 앞당겼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대인예술야시장이 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지난 2015년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대인야시장을 찾은 스웨덴 선수들이 시장을 둘러보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인예술야시장서 아트 컬러링 체험하고 콘서트 보고

수영대회 기간 외국 선수단·방문객 위한 특별야시장 운영

광주 대인예술야시장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광주시는 ‘폴장폴장 넷째 달’이라는 주제로 7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대인예술야시장을 개장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19·20일(금토), 26·27일(수)에는 특별야시장을 운영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이달 주제인 ‘폴장폴장’은 대회 수영장 이미지를 떠올려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장소의 풀장, 스트레스를 풀자, 흥미로운 콘텐츠들로 가득찬 풀(Full)장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대인예술야시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단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려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대인시장 주요 거점 공간 2곳에서 영어, 중국어 통역 서비스를 진행해 외국인 편의를 돕는다. 대인예술야시장을 소개하는 영문·중문 안내문도 곳곳에 내건다.

대회 기간 특별 프로젝트로 ‘꿈꾸는 고래를 초대합니다’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대인예술야시장 레지던스 ‘묘수’ 입주자가 5인(전준모외 4)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아트 컬러링 프로젝트다. 희망 메시지가 담긴 작은 다각형 조각들을 색을 칠하

고 퍼즐 맞추듯 맞춰보며 하나의 대형 고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시민참여형 설치 예술 작품이다.

19, 26일 다문화공간 드리머스에서는 ‘드리머스가 들려주는 광주 이야기’라는 특별 콘서트도 연다.

외국인에게 외국인인 소개하는 대인예술야시장 외국인 존도 운영된다. 광주에 사는 외국인들이 광주의 매력은 무엇인지 들려주고, 직접 만든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외국인 야시장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금속조각가 이송준 작가의 전시 등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도 곳곳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대인예술야시장 공식 블로그(blog.naver.com/byeolj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남도한바퀴' 특별상품 현장 예매

수영대회 15~28일·마스터즈대회 8월 5~16일

전남도는 4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전남을 찾는 임원·선수과 가족, 국내외의 관광객을 위해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남도한바퀴' 특별상품 10개 코스의 인터넷 및 현장 예매에 나섰다.

광주소방안전본부 대회 기간 새롭게 선보이는 남도한바퀴 특별상품은 박물관 여행, 생태관광 투어, 힐링&남도별미,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행, 아름다운 정원 등을 테마로 하고 있다. 당일 코스 8개, 1박2일 코스 2개다.

운영 기간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인 15~28일과 마스터즈선수권 대회 기간인 8월 5~16일이다.

남도한바퀴 특별상품 운행 코스는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 선수촌을 경유해 각 코스별로 떠난다. 당일 상품의 경우 ▲박물관 여행은 국립광주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전남농업박물관 ▲생태관광 투어는 죽녹원~녹차밭~제암산자연휴양림/소쇄원~무안회산백련지~분청사기

전시관 ▲힐링&남도별미는 축경산편백숲-장성담미락단지길-필암서원/섬진강길-순천만습지/편백숲우드랜드-토요시점-보림사/대흥사 장충굴길-통닭거리-녹우당/고흥 분청문화박물관-나로도항, 속섬 등이다. 1박 2일 상품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행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나주 금당거리-불회사-고인돌유적지-송광사-선암사-대흥사-녹우당 ▲아름다운 정원 여행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소쇄원-목포 해양유물전시관-갯바위공원, 평화광장-강진 백운동별서정원-보성 녹차밭-순천만국가정원으로 구성됐다.

특별상품 이용 요금은 당일 코스는 9900~1만6900원이며, 1박2일 코스는 6만 9000원이다. 세부 코스별 이용 금액, 탑승 정보, 예약 문의 등은 남도한바퀴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과 금호고속 상담센터(062-360-8502)에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